

보도시점 2025. 11. 3.(월) 17:00 배포 2025. 11. 3.(월) 09:00

정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및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외식업계 협조 당부

- 농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 관계부처 합동 외식기업 간담회 주재
-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 당부
- 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을 위한 투명한 가격정보제공에 적극 동참 요청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암삼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고, 김정욱 실장은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하면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외식업계 전반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합리적 가격정책과 투명한 정보제공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물가 안정과 외식업계 현안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최민지 (044-201-2151)
	식품외식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규 (044-201-2157)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효열 (044-215-2775)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종배 (044-201-4405)
	소비자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안석우 (044-200-4406)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홍정미 (043-719-2032)

